파나소닉, 본사인력 절반으로 감축

니혼게이자이, 희망퇴직 또는 자회사 전환으로 ... 경영자원 집중위해

일본 전자기업 파나소닉(Panasonic)이 본사의 인력 절반을 감원 또는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월2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본사 인력 7000명 가운데 3000-4000명으로부터 연내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자회사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파나소닉은 본사 인력을 대폭 줄여 의사결정 구조를 슬림화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경영자원을 성장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파나소닉이 본사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처음으로, 일본지역 근로자가 10만명에 달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2회계연도에 500억엔의 흑자(연결 기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 TV 사업 등에서 고전하면서 2011년 7721억엔(약 1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파나소닉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해 자회사인 산요전기의 가전 부문을 중국 하이얼에게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2011회계연도에 국내외 전체 인력 33만명 가운데 3만명을 감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9>